

부자유친이 따로 있나요?

방학동 몽테도르 과자점



가업을 대물림하는 일은 자신의 생에 대한 긍정의 표현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엔 부자가 함께 내일을 열어가는 대물림의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부자유친의 따스한 사랑이 엮여가는 삶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일을 하다보니 어느새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고, 단지 유명해지기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일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느냐 하는 것이다.’

도봉구 방학3동에 위치한 몽테도르과자점 대표 한종환(62) 씨는 지금도 가끔 습관처럼 이 말을 되뇌인다. 어느덧 세상의 모든 말들로부터 귀가 편안해진다는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어섰지만, 그는 인생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이면의 얼굴을 대면하고 좌절해야 했던 술한 추억들을 빛바랜 사진처럼 간직하고 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자신의 생

애를 돌아볼 때마다 이제 그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두 아들의 듬직한 모습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한다.

가마솥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

한종환 씨가 처음 제과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1953년 무렵이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근처 서당에 다니던 그는 우선 ‘입이나 달자’는 생각으로 당시 매형이 근무하고 있던 마산 고려당에 수련생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겨우 16살의 시골 소년이었다. 그에게 새벽부터 설사이 없이 계속되는 공장일은 낯설고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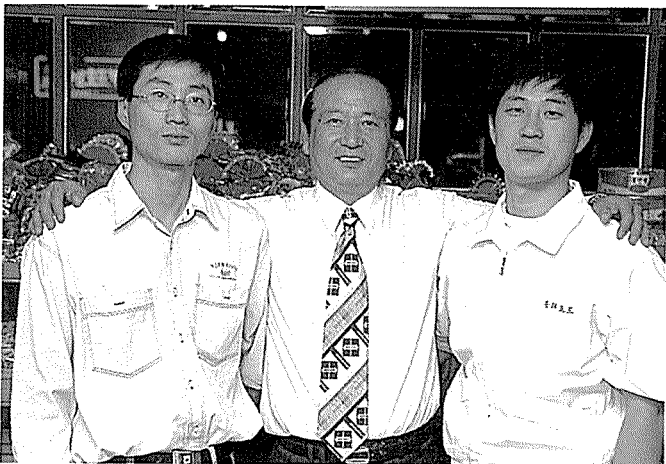
“일을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인데, 하루는 앙금을 끓이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가마솥 안으로 빠진 일이 있어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들에게 간신히 건져올려졌을 때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급한 감에 몸에 흘러내리는 앙금을 씻어주던 동료 직원의 손바닥까지 허물이 벗겨질 정도였으니...”

꿈 많은 어린 소년에게 닥친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 사고 이후 한동안 그는 우울증에 빠져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다. 하지만 인생은 짐짓 우연을 가장하여 실의에 빠져있던 그에게 한줄기 환한 빛을 내려주었다.

부산에서 만난 한 미국인 선교사가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독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 것이다. 당시 독일병원은 미 8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던 의료기관으로, 치료 3개월만에 그는 당시로서는 생각하기도 힘든 피부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게 된 그는 숙고 끝에 3년간 근무하던 마산 고려당을 떠나 월남 기술인들이 많이 모여살던 부산 완월동으로 직장을 옮겼다. 어려서부터 눈썰미가 뛰어나다는 칭찬을 들어온 그였지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새벽잠을 떨치고 일어나는 그의 남다른 노력 앞에 선배들은 기꺼이 숨은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부산에서 근무한 2년여 사이, 그는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어느새 소문난 숙련공으로 훌쩍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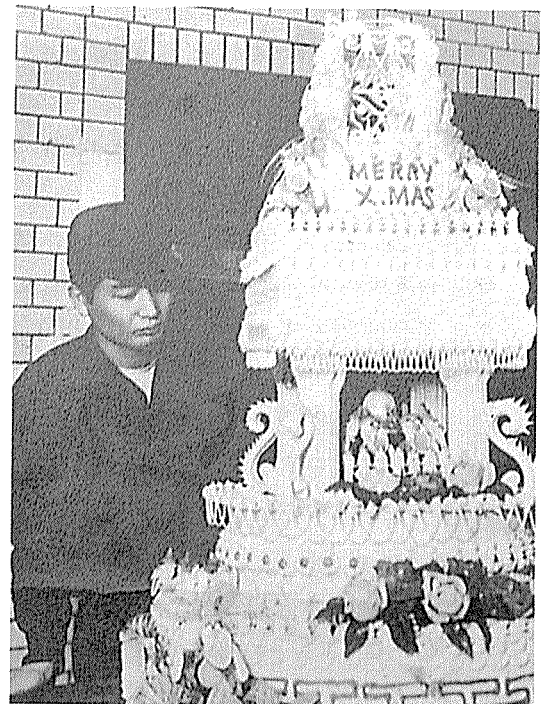
“동래의 한 제과점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상경한 게 1957년이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이었지만 제 솜씨를 인정해 준 풍년제과에 곧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풍년제과는 고려당, 뉴욕제과, 태극당과 함께 제과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명문빵집이었지요. 열기왕성한 나이기



▲ 1995년 몽테도르과자점은 인테리어와 기계설비는 물론 100여년간 고수해 왔던 상호를 교체했다. 두 아들 근호(왼쪽), 진호(오른쪽)씨와 함께 한 몽테도르의 기운찬 출항을 알리는 나팔소리였다.

도 했지만, 이 왕이면 큰 물에서 놀아보자 싶더군요.”

풍년제과에 정을 들이고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그는 1960년, 23살이던 나이에 최연소 공장장으로 발탁되는 행운을 만난다. 한동안 젊은 공장장을 시



▶ 64년 풍년제과에 근무할 당시의 한중환씨와 그가 제작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기하는 선배들과 사소한 오해도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최고만을 지향하는 패기넘친 젊은이였다. 그만큼 기술에 관한 그의 긍지는 대단했다.

이후 그는 덕수제과와 크라운제과의 공장장을 거쳐 1976년, 6개월간 대만에 체류하며 현지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두 아들과 함께 일구는 삶의 터전

1979년 강북구청 부근에 삼호당제과란 상호로 개업했다가 1987년부터 현 방학4거리 신동아아파트 입구로 옮겨오며 몽블랑제과점으로, 95년 다시 현재의 상호로 이름을 바꾼 몽테도르과자점은 그의 생애가 집약된 소중한 보금자리다. 한 여름에도 긴팔옷을 입어야 할 만큼 온 몸에 상처기를 남겨놓은 지난 세월이 아득하게 생각되다가도, 이제 그 대신 묵묵히 제과점 살림을 꾸려나가는 아들 형제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든든함을 느끼기도 한다.

한중환 씨는 나름대로 사회에 기반을 내리고 살던 두 아들을 제과업에 끌어들이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평소 꿈꿔 왔던대로 자식에게 대를 물리기까지 그는 무던히 속을 끓여야만 했다. 모진 풍상을 겪어온 그가 막상 두 아들에게 제과업을 잇게 하자 처음엔 주위 사람들도 모두 의아하게만 생각했다.

현재 몽테도르과자점의 영업을 관리하고 있는 큰 아들 근호(36)씨도 처음엔 아버지의 제의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수원공전을 졸업한 뒤 한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근호씨가 몽테도르의 전신이었던 몽블랑제과 증계동 지점을 맡아보게 된 것은 1987년.

“처음 아버님의 권유로 지점 일을 맡게된 때만 하더라도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저 역시 제 인생의 길은 다른 데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버지의 간곡한 설득으로 중계동 매장 일을 떠맡게된 뒤에도 근호씨는 자신의 진로에 많은 갈등을 느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의 여파로 인건비가 상승해 불경기가 계속될 때였다. 결국 누적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중계동 지점은 호지부지 문을 닫고 말았다.

실의에 빠진 근호씨를 위로할 겸 한중환씨는 떠밀다시피 아들을 동경제과학교 연수단에 참여시켰다. 다행히 일본에서 돌아온 근호씨의 생각은 그사이 아버지의 권유를 선뜻 수용할 만큼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둘째 아들 진호(34)씨를 설득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다. 졸업 후 수자원공사에 취직해 자리를 잡아가던 둘째 아들에게 어느날 그는 년지시 ‘함께 일해보자’고 말을 꺼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은 한사코 고개를 내저었다.

항상 뜨거운 팬에 데여 늘 물질 투성이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진호씨 역시 굳이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일하기를 권하는 부친의 결정을 쉽게 따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진호씨 역시 아버지의 집요한 설득 앞에 두손을 들고 말았다. 결국 그는 4년 전부터 지금껏 몽테도르의 공장일을 돕고 있다.

가족이 함께 일구는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

한중환씨가 굳이 근호·진호 두 아들과 함께 제과점 일을 함께 하려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40여년 간 제과업계에서 일하며 몸소 체험한 자신의 노하우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했다.

작년에 그는 1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여 가게 인테리어와 기계 설비를 대폭 교체했다. 아울러 10여년간 고수해왔던 몽블랑이란 상호를 ‘몽테도르’로 바꿔 달았다. ‘금불이를 차곡차곡 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와 두 아들이 함께 한 기업이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기운찬 나팔소리이기도 했다.

“우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철새처럼 여러 가게를 옮겨 다니는 기술인보다는 가족처럼 믿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몽테도르과자점은 근호·진호형제, 그리고 카운터를 보고 있는 큰 며느리 남궁선숙(34)씨를 비롯해 일가족이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중환씨의 꿈은 장차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기 지점을 나누어 몽테도르

를 확장하는 것. 그래서 그는 한동안 아들들에게 각기 영업과 기술쪽을 전담하게 하여 전문화된 경영체제로 가꾸어갈 생각이다.

또 근래에 들어 외국연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안에 식견도 넓힐 겸 해외연수도 계획 중에 있다. 그 자신이 그러했듯 전문이란 단지 보고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몽테도르 삼부자의 인생은 그래서 아직도 끝없이 계속되는 진행형의 삶인지도 모른다. **▶▶**

〈글/이종원〉



▶ 제품에 관한 한 중환 씨는 언제나 최고를 고집한다. 그의 이런 고집은 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장남 한근호 씨와 부인 남궁선숙씨. 가족간의 이해와 사랑이 있기에 더욱 큰 힘을 얻는다

